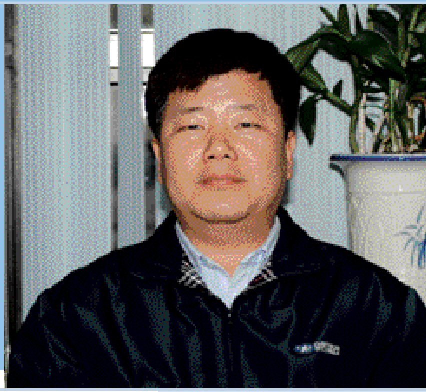
내 안전은 내가!
우리안전은 우리가!

제47호 자랑스런 안전인 유한킴벌리(김천공장) **이 홍 태** 부장



우리 자녀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새하얀 입김을 '호호' 불며 뜨거운 호빵을 먹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다. 오랜만에 타는 기차의 '덜커덩' 소리가 왠지 정겹게만 느껴지고 창밖의 풍경은 쌓인 흰 눈만 아니면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늦가을의 한가로운 오후를 연상케 한다.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드넓은 들판을 따라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의 이홍태 부장을 만나러 김천으로 향한다.

이홍태 부장은 불혹이 훌쩍 넘은 나이에 아내와 두 아이를 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다.

원래 전공은 전기공학이지만 안전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으로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면서 1990년에 유한킴벌리의 안전관리 담당자로 입사하게 된 것이 안전의 길을 걷게 된 계기라고 한다. 입사와 동시에 독립된 안전관리 부서가 생기고 7년이 되는 해에 부서장이 되어 올해로 17년 동안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의 안전에 관한 한 과거와 현재를 함께 하고 있다.

김천공장은 미용티슈와 화장지, 키친타올, 부직포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물류 네트워크를 거쳐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김천공장의 주요 품목인 화장지를 제조하는 공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지, 신문지, 펄프를 비율에 맞추어 물과 혼합 및 세척 등의 원질 공정과 탈수, 건조 등의 초지공정, 엠보싱을 넣거나 권취, 포장 등의 가공공정이 있다. 각 공정마다 거대한 기계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화장지의 제조 산업은 장치산업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현장에는 위험기계나 기구(호이스트, 크레인, 승강기, 압력용기), 지게차, 전동차, 회전체 등이 많이 있고 미세한 분진 등이 있어 이로 인한 화재, 낙하, 협착, 충돌 등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작업허가제, 사용전안전점검 및 매월 자체점검, 전동차 및 지게차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표준작업절차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근무반장들은 작업전 안전점검 및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평생학습체제를 통한 충분한 휴식과 지식습득, SMART라는 유한킴벌리만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과 5S활동의 정착화, 무재해 운동, 아차사고관리, 매월 우수안전인 선정 등 다양한 방법과 철저한 실천으로 재해 없는 안전한 직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재해에는 연습이 없으며 안전은 제일이 아니라 영순위라고 말하는 이홍태 부장이 있기에 오늘도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의 근로자들은 무사히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 임재근 기자 〉